



[뉴스]
서울시-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두고
줄다리기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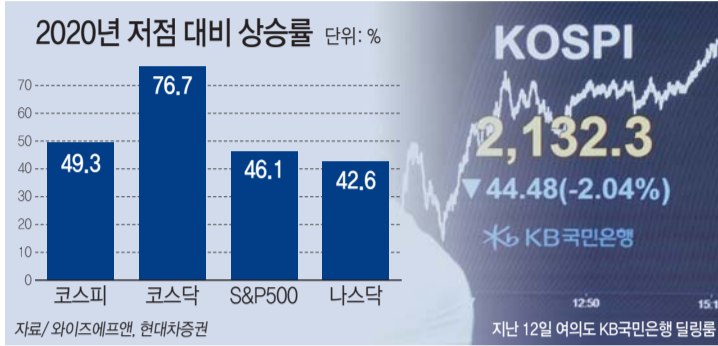


Economy

코스피	2132.30 (0.00)	코스닥	746.06 (0.00)
금리 (우대금리)	0.841 (+0.004)	환율 (원/달러)	1203.80 (+7.40) (12일)

시중에 풀린 돈, 주식·부동산 쏠림

코로나 여파 급락 3개월여만 코스피 저점대비 49% 상승 코스닥 상승률은 80% 달해 서울 아파트값도 다시 상승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돈 풀기(양적완화)에 나서면서 증시와 부동산이 들쭉거리고 있다.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풀린 유동성이 실물경제가 아니라 주식 등 자산시장으로만 흘러들어간 탓이다. 전례없는 위기에 개인과 기업 모두 최소한의 필수적인 소비와 투자에만 돈을 쓰고 나머지는 저축하거나 투자자산에 묶여두고 있다.

과 부동산 등 자산 인플레이션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지난달 26일 2000선을 돌파하고, 지난8일에는 장중 2200선도 넘어섰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에 하락세로 돌아섰지만 여전히 2100선을 웃돌고 있다.

문제는 증시를 끌어올린 배경이 실적이나 유동성이 아니라

문제는 증시를 끌어올린 배경이 실적이나 유동성이 아니라

점이다. 국내 증시가 급락할 때마다 개인들이 대규모 순매수에 나서면서 코로나19 공포감으로 급락한 저점 대비 상승률은 코스피가 49.3%로 사상 처음으로 1만선을 돌파한 나스닥(42.6%)을 웃돈다.

코스닥의 상승세는 더가파르다. 언택트(비대면)와 바이오 관련주가 급등하면서 저점 대비 상승률은 무려 80%에 달한다.

세계 주요지수와 비교해도 수위권이다.

증시가 코로나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자 이번엔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을 흔들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주 대비 0.02% 상승했다. 상승세로 돌아선 것은 3월 둘째 주(0.02%) 이후 13주 만이다. 특히 강남 4구는 0.02% 올라 1월 둘째 주 이후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유동성의 힘이 고가 아파트에 대한 초강력 대출규제와 보유세 강화를 뛰어 넘었다.

서울 뿐만이 아니다. 경기 지역 아파트값과 지방 아파트값도 각각 0.19%, 0.06% 올라 지난 주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3면에 계속)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메트로미디어 '제2회 FFTK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 푸드테크 미래 연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푸드테크 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새로운 기회를 찾는 자리가 마련된다.

전세계로 빠르게 확산된 전례없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면역력과 건강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며 먹거리와 식품 시장의 거대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글로벌 식품업계는 이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큰 과제를 마주하고 있다.

이에 메트로미디어는 오는 6월 24일 서울 서소문 LW컨벤션 그랜드홀에서 '2020 퓨처 푸드테크 코리아(FFTK2020)'를 개최한다.

올해 두번째 열리는 FFTK2020은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푸드테크와 지속가능성(가제)'을 주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 식품시장을 위한 선도할 혁신기업을 조명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식품에 대한 인사이트를 공유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는 홀거 토스카 유니레버 식품 연구개발(R&D) 센터장이 기조강연을 맡는다. 그는 이번 포럼에서 자신이 경험한 글로벌 식품시장 트렌드 변화와 미래식품 개발을 위한 의견을 공유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그의 강연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 행사명 : 2020 Future Food-Tech Korea(FFTK 2020)
- 주 제 : 포스트 코로나, 새로운 푸드테크와 지속가능성
- 일 시 : 2020년 6월 24일(수) 14:00~17:00
- 장 소 : 서울 서소문 LW컨벤션 그랜드홀(2호선 충정로역)
- 주요 프로그램
 - 개막식
 - 기조강연 : 홀거 토스카 유니레버 식품 R&D 센터장
 - 세션강연 : 김기웅 심플프로젝트컴퍼니(위국) 대표, 이종훈 롯데액셀러레이터 투자본부장, 황성재 라운지랩 대표, 김혜연 엔싱 대표, 민금채 지구인컴퍼니 대표
 - 문의 및 참가신청 : (02)02-6020-6833, 이메일 : spring@acres.co.kr
 - 참가비 : 11만원(대학(원)생 사전등록 시 무료, 단 학생증 지참)
 - 주최 : 메트로미디어
 - 주관 : (주)에이커스



코레일 채용 시험장 '거리두기'는 기본

시험 응시생들이 14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서경대학교에서 열린 2020년 상반기 한국철도 신입사원 채용 필기 시험을 치르기 위해 입실하고 있다. 한국철도(코레일)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은 전국 4개 권역 24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이날 응시생 4만 3000여명은 지원 분야에 따라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에서 오전 10시, 오후 1시와 3시 30분 등 3회로 나눠 시험을 본다.

시험 응시생들이 14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서경대학교에서 열린 2020년 상반기 한국철도 신입사원 채용 필기 시험을 치르기 위해 입실하고 있다. 한국철도(코레일) 신입사원 채용 필기시험은 전국 4개 권역 24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이날 응시생 4만 3000여명은 지원 분야에 따라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에서 오전 10시, 오후 1시와 3시 30분 등 3회로 나눠 시험을 본다.

대주주 발빠는 쌍용차... 정부 지원 나설까

마힌드라, 지배권 포기 검토 새로운 투자자 확보 모색중 수만 일자리 달려 채권단 고심



쌍용차 창원공장 조립라인 직원이 엔진을 조립하고 있다.

쌍용자동차가 또 시장에 매물로 나왔다.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새로운 주인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정부 지원만이 마지막 해법으로 거론된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엔 마힌드라는 쌍용차 지배권을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쌍용차 이사회 의장인 파완 고엔카 마힌드라 사장도 쌍용차에 투자자가 필요하며, 투자 확보를 위해 쌍용차와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힌드라가 쌍용차를 다시 시장에 내놓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다. 쌍용차가 다음달 산업은행 대출금 900억원 만기를 비롯해 자금 유동성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마힌드라가 올 초 2300억원 자금 지원을 약속했다가 코로나19로 취소하게 됐기 때문이다.

지원을 취소한 지난 4월 아니시 마힌드라 부사장은 새로

운 투자자를 유치해 자사 지분율이 떨어뜨리거나, 자사 지분을 매각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단, 쌍용차가 이번에도 새로운 주인을 만나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중국 상하이 자동차에 인수될 당시만 해도 SUV 부문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최근에는 자동차 산업 전체가 주춤한 데다 별다른 기술적 우위도 갖고 있지 않아서다.

마힌드라가 국내 정부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여기에서 나온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을 통해 2000억원 지원을 노리고 있다는 것. 아울러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다음달 만기 대출을

연장해 주는 것도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일단 만기 연장 가능성은 높다. 코로나19로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이 대출 만기 연장에는 긍정적이라서다. 만기 연장에 성공하면 일단 쌍용차는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받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자금 지원 대상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라서, 오랜 기간 적자에 시달린 쌍용차에는 지원할 명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정부가 '일자리 지키기'를 앞세우고 있는 만큼, 어떤 방법으로든 쌍용차를 살릴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4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

서정진 회장 3300억 통큰 투자 '셀트리온' 글로벌 제약사 도약

다케다 아태지역 제품군 인수

양득' 전략으로 평가받는다.

◆3000억원 인수 '적절'

셀트리온은 지난 12일 글로벌

서정진 셀트리온 그룹 회장이 글로벌 종합 제약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3300억원의 통큰 투자를 결정했다. 화이투벤과 알보칠 등을 포함한 다케다제약의 의약품 18개 제품에 대한 아시아태평양(아태) 지역 권리를 모두 인수하며, 글로벌 케미컬 사업부문의 커다란 축을 세웠다.

서 회장이 단행한 첫 대형 인수 합병(M&A)은 바이오시밀러에 집중됐던 기업 체질을 한번에 바꾼 것은 물론, 유럽, 미국 시장에 집중됐던 글로벌 사업을 아태지역 까지 확장하는 '일거

셀트리온은 지난 12일 글로벌 케미컬의약품 사업부문의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 다케다제약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제품군에 대한 권리 자산을 인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셀트리온은 한국, 태국, 대만, 홍콩, 마카오,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호주 등 9개 시장에서 판매 중인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 브랜드 18개 제품의 특허, 상표, 판매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3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